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말씀

2020. 12.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소통하고 중지를 모으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의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회사 역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산업 내·외부의 경쟁이 치열해 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적극적인 소통과 고민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장과 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10일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두 달여간 각 금융업권은 물론,
핀테크·빅테크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속의 다양한 고민과 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총 6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하고, 좁은 제도는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0건(65%)을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오늘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확정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거나 해결된 사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Ⅲ. 향후계획

오늘 회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소비자 신뢰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도

늘 현장 속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